영화 활용 자기주도 영어 학습에서 대학생들의 영화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김 병 선 · 장 만 식*
(가톨릭관동대학교)

Kim, Byungsun & Jang, Mansik. (2021). A study on university learners' movie selection criteria in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using films. *STEM Journal*, 22(1), 19-37.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university learners' experiences of movie selection in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using film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riteria for movie selection by students and the differences in self-directed English learning by comparing movie selections of teachers and those of students. The participants are 8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ollege English classes using films for two semesters in 2020.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zzi's (1978)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experiences were divided into 7 themes, 3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The criteria considered were: pronunciation and accent in a movie; movies dealing with daily lives; movies that include reciprocal activating interactions between actors; movies based on a learner's level; movies with complex language and content higher than a learner's level; movies motivating a learner's interest; instructive movies. Students had difficulties related to time and task in using movies selected by their teacher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study to clearly identify if there a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ectiveness of learning English according to who the movie contents select—the teacher or the stud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noted and further research topics are suggested.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10년 동안 공교육으로 영어를 배운다. 게다가 대학에 진학해서도 대학이 처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년에서 2년 간 4학점에서 8학점을 의무적으로

* 제1저자: 김병선, 교신저자: 장만식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취업과 승진 또는 유학과 다양한 진로의 모색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영어는 빼놓을 수 없는 경쟁력 확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이들에게 영어 능력에 대한 중요성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조혜영, 2015).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전공을 불문하고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가 되기 위해 대학 안팎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하정 & 원효현, 2018; 박은수, 2013).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어 능력을 향한 사회 전반의 평가 또한 부정적이다(양현권, 2011).

그렇다면 왜 대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투자 대비 낮은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한정된 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의존적이라는 점이다(김금선, 2013). 즉 제한된 교실 환경, 다시 말해 영어 실력 편차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는 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하는 데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Ellis & Sinclair, 1989).

자기주도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자기주도학습의 대표적 학자인 Knowles(1975)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욕구 진단, 학습 목표 설정, 학습 자원 확보, 학습 전략 선택 실행, 그리고 학습 결과의 평가까지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라고 하였는데,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학업 성취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학습의 자율성이다. 즉 교수자의 일방적인 교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주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교수자의 역할 또한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시각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장옥희(2006)에 따르면 교수자는 다음의 4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여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촉진시켜 주는 역할이다. 둘째,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안내자의 역할이다. 셋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 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학습하고 있는 대상 언어와 이를 학습하기 위한 유용하고 적합한 학습자료에 대한 지식을 가진 학습자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사의 마지막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실제적인(authentic) 학습

자료의 제공은 학습자들에게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상황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Akbari & Razavi, 2016)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영어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활용 수업은 학습자를 고려하였지만, 교수자 주도의 영화선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영화를 선택한 경우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대학생들에게 학습과정 전반의 선택권을 부여하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먼저 학습자들에게 자기 결정권이 많이 주어진다면 질수록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강화된다(장옥희, 2006). 또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어 학습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신이 선택한 과제에 대해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완벽하게 그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책임감과 적극성을 나타내고 결국 내재적 동기와 직결(소연희, 2007)되어 영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영화를 활용해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수행하게 하고 그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자기주도 영어학습에서 활용할 영화 선정 기준과 교수자가 영화를 선정해 주었을 때와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영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영화 활용 수업에서 영화 선정할 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학습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효과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적 학습 자료인 영화를 활용한 영어 교수 방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영어 수업에서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가는 추세다. 이는 영어교육에서 실제적 자료인 영화 활용이 가지는 장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연화(2010)는 다양한 영상매체에 몰입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에게 기존의 제한된 텍스트로는 지속적인 흥미를 유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언어적인 요소와 함께 영화 속의 주제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문화적 내용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활동으로 영화 활용 교수법의 장점을 언급하였다. 또 이제영, 문은주, 그리고 박옥희(2013)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응,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 상황 제공,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영화 활용 영어 수업의 장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화 선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는 그들의 언어 수준 및

교육 과정 연계 측면에서 적합하며(김기택 & 성민창, 2019), 내용적인 측면으로 학습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언어적으로는 연령별로 능력별로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유도형, 2015b)하다 할 것이다. 영화학을 전공한 윤종옥(2014)은 비록 영어 학습은 아니지만 독일 영화를 이용한 대학수업의 사례 연구에서 영화 선정을 할 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작품이 그 첫 번째이고, 수업 자료로 작품을 구하기 용이한 현대적인 영화가 두 번째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영화사적으로 문제적인 작품도 선정기준으로 언급하였으나 영화학적 접근이 다분하고 영어교육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어 이 내용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김동규(2015)는 *Bridges of Madison County*라는 제목의 영화를 대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을 위해 선정하였는데,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는 점과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휘 및 언어가 비교적 평이하고 문학성이 높다는 데 따른 것이었다. 유도형(2015a)은 영화 미디어 활용 드라마 기법을 통해 대학영어 학습자의 자율성 증진을 영어 수준이 낮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그 근거를 드라마 기법이 잘 반영되고 문법 특성이 분명히 활용될 수 있는 작품에서 찾았다. 영어 수업 환경에서 영화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로 유도형(2015b)은 분석하지 않아도 한번에 암기하고 싶은 표현을 단어결합체라고 정의하고 연구자료로 삼은 영화 *토이 스토리 3*를 단어결합체 학습에 쉬운 교재로 단정하고 있으며, 김서형(2009)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에 적절한 영화선정 기준을 범주화로 체계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흥미성, 용이성, 보편성, 실재성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영화를 활용해 자기주도영어 학습을 수행할 때 영화 선정의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둔다. 대학생들의 영화 선정에 관한 경험에 대한 연구이므로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자는 특정 현상에서 드러나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기술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험의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현상학적 연구(김은선, 이영순, & 김동원, 2005)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귀납적 연구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추구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창의성을 염두해 두고 예리한 진술과 적극적인 관찰 및 정확한 회상에 주력하였다(신경림, 1997). 그리고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연구참여자들의 진술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는 과정을 거치고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을 가능한 배제(김혜진 & 김옥분, 2009)시킴으로써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연구 경험을 가진 동료 교수 2인을 검토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 위치한 4년제 C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참여한 1학년 27명 중 연구의 연속성 즉 1학기 영화를 교수자가 선정했을 때의 자기주도 영어학습 경험을 가진 15명을 대상으로 1차 선정하였다. 그런 후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8명의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경찰행정 2명, 간호 3명, 사회복지 3명이고, 성별 비율은 5대 3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인터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호하는 영화 장르를 물어봄으로써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배려하였다. 윤리적 고려 차원에서 실명은 영어 알파벳으로 대체하였으며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내용의 비밀 연구결과의 익명성 보장을 골자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	성별	나이	학과	선호하는 영화 장르
A	여	20	간호	애니메이션
B	여	20	간호	로맨틱 코미디
C	여	21	간호	액션
D	남	20	경찰행정	애니메이션
E	여	20	경찰행정	드라마
F	남	20	사회복지	로맨틱
G	여	20	사회복지	애니메이션
H	남	22	사회복지	서부영화

2. 연구 설계를 위한 수업 구성

코로나19가 진정된 국면을 보이지 않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는 2020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대면 온라인 교양 영어 수업이 정책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자기주도 영어 학습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영화를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게 하였다. 1학기에도 영화를 활용 동일한 수업 방식으로 교양영어 수업을 운영하였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연구자가 영화를 선정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으면서 동시에 자기주도영어 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영화를 1인당

1편씩 선정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영화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연구참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화를 선정하고 이를 자기주도 영어학습으로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교수자가 선정한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 것이라고 파악된다. 다음은 교양 영어 수업 종강 즈음에 수업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받은 자료인데, 이중 연구에 참여한 한 학습자 진술에서 이러한 대목이 확인된다.

교수님이 영화를 선정해 주셨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거리가 멀어도, 나의 영어 수준과 차이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영화를 선정하니 내 취향에 맞으면서도 수준에도 적절한 자료를 찾아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학습이 되어 더 좋았다. (A학생)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성적으로 인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종강 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별로 하루에 두 명씩 1회로 한정하였고 코로나 환경으로 대면 면담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웹엑스(Webex)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30분으로 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 카카오톡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보완하였다. 모든 인터뷰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녹음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어떤 이유와 기준으로 영화를 선정하는지에 대한 것과, 선정한 영화를 바탕으로 자기주도 영어학습 경험 이전 교수자가 선정한 영화를 활용한 자기주도 영어학습과의 차이에 관한 것인데 일정한 부분만 질문지를 만들고 그 외 자유롭게 피면접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금은 느슨한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미리 준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자기주도 영어 학습에서 활용할 영화 제목은 무엇인가요?
- 2) 자기주도 영어 학습에서 이 영화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자기주도 영어 학습에서 영화 선택 시 자신만의 기준이 있나요?
- 4) 교수자가 택한 영화로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할 때와 본인이 택한 영화로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하고 나서의 경험의 차이는 있다면 무엇인가요?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방법의 절차와 자료분석과정은 Colaizzi(1978)의 연구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즉, 1) 자료에서 느낌을 얻기 위해 대상자의 기술(protocols)을 읽기 2) 탐구하는 현상을 포함하는 구,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하기 3) 의미 있는 진술에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하기 4)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끌어내기 5)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 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하기 6) 주제를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하기이다(김분한 외 9인, 1996).

IV. 연구결과 및 논의

대학생들의 영화 선정 기준에 관한 경험을 나타내는 원자료로부터 도출된 67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의미를 구성하였고, 도출된 의미에서 7개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3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이를 2개의 범주로 표 2와 같이 최종 선정, 조직하였다. 그리고 영화 선정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기주도 영어학습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서술한 내용을 첨부하고 이를 분석해 보았다.

표 2

대학생들의 영화 선정의 기준에 대한 경험

주제	주제모음	범주
영어 발음과 억양을 고려한 영화 일상생활을 다룬 영화 의사소통이 활발한 영화	실제적 자료	학문적
나의 영어 수준에 맞는 영화 나의 영어 실력에 도전을 주는 영화	영어 수준	
흥미와 재미가 있는 영화 교훈적이고 배움이 있는 영화	동기유발	정의적

1.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s)

대학생들이 그 동안 배워 온 영어는 교재를 통해서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어 교과서에서의 영어 표현들은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자료보다는 다소 수정, 보완된 언어자료(Derwing, 1989)라는 것이다. 교재로만 배울 경우 원어민의 발화

속도와 상이함은 물론이고,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어 학습자들은 원어민이 구사하는 영어의 노출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낯설 수밖에 없다. 실제적 자료로 영어 학습을 해 나가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원어민과 대화를 하거나 영어로 진행되는 TV 또는 라디오 방송 등을 시청할 때 심한 좌절감을 겪는다(김동규,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영화를 선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영어 발음과 억양을 고려한 영화’, ‘일상생활을 다룬 영화’, ‘의사소통이 활발한 영화’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영어 발음과 억양을 고려한 영화

영어권 원어민의 영어 발음과 억양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를 떠올리게 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영국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 그리고 미국영어를 경험할 수 있는 영화를 구분지어 선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영어 학습자들은 발음 교육과 억양 교육은 영어 전공자가 아닌 이상 대학영어 수업 현장에서 지도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영화 선정 시 고려하는 사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학습자들은 발음과 억양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발음을 가지고 상대의 영어를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기도 하기에 영어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영국식 영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발음이나 억양이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는 달라 한편으로 당황스럽고 한편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자막을 보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영국영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는 생각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조차도 발음 때문에 상대방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발음과 억양에 관심이 가네요.(B학생)

저는 주토피아를 선택하였는데 영화 속 성우들의 발음이 표준 발음과 가장 비슷하고 너무 빠르지 않아서 따라하기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어떤 발음이 영어적인지는 알아서 저도 그런 발음으로 연습하면 좋겠다 싶어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D학생)

2) 일상생활을 다룬 영화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다루는 영화는 실제적 언어를 노출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은 실생활과는 관련성이 부족한 교과서의 탈맥락적인 일반적 지식에 치여 제대로 된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영화는 실용영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화를 선정할 때 판타지나 액션물과 같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보다 로맨틱 코미디와 같은 일상생활을 다루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상을 다룬 내용은 이들에게 익숙하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저는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부분 부분 봤던 영화라 이번 기회에 끝까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기차라는 장면이라든가 남녀 간에 대화가 너무도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어날 법한 일도 아닐 때 그 괴리감은 크고 공감도 안될 것같아 우리나라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택하게 되었습니다.(C학생)

3) 의사소통이 활발한 영화

우리나라의 영어 교실은 언어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한정된 교육인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영어 의사소통을 경험하고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정재희, 2014).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은 2인 이상이 주고 받는 대화에서인데, 영화 속에서 출연자들이 대화를 주고 받는 장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영화 선정 시 독백으로 하는 장면보다는 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 주고 받는 문맥 상황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다 여긴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보다 2인이 주고 받는 의사소통 속에서 집중력을 가질 수 있어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아무래도 상호작용이 활발한 영화 장면을 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리를 다룬다거나 독백이 있는 장면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들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여 못 알아듣더라도 문맥상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준에 맞추어 영화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언니와 그 대사를 주고 받으며, 말하는 연습을 할 수있었던 것 같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G학생)

2. 영어 수준

영화를 활용한 자기주도 영어학습에서 영화의 선정은 교재 선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교재의 선정은 현장의 개별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교재 선정의 과정에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은이(2010)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수업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학생 수준에 맞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자기주도 영어학습이라 할지라도 좋은 학습이 되기 위해서 학습자 수준이 그만큼 중요하며 이것을 영화 선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화 선정 시 영어 수준을 자신에게 맞는지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것인가도 고려 대상이라는 것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 나의 영어 수준에 맞는 영화

안애랑과 박은수(2014)는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는 수업의 중요함을 피력한다. 이들은 학습자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인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의욕 그리고 흥미를 떨어뜨려 수동적 학습을 초래하고 특히 하위 수준 학생들의 경우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자기주도 영어학습도 이와 맥락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화 선정을 할 때 자신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고, 수준을 넘어서면 학습의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제가 선택한 영화는 *키싱부스 2*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오락실에서 춤 관련 게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영어 수준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대사가 어렵지 않고 그 단어를 몰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설정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의 수준을 벗어나면 금방 포기하는 성향을 놓고 볼 때 쉽다는 느낌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F학생)

2) 나의 영어 실력에 도전을 주는 영화

영어 학습자들은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 $i+1$)이 많을수록 습득과정을 용이하게 받아들인다(정혜영, 2002). 즉 이것은 학습자의 현 단계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내용을 제공하면 효과적인 영어습득이 가능하게 된다는 Krashen(1982)이 주장한 입력가설의 요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비록 그의 이론을 알고 있지 않았지만 영화를 활용한 자기주도 영어학습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한 단계 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도전이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화 *하나 몬타나(Hannah Montana)*는 제가 어렸을 때 유년기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미숙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스크린 이미지와 한글 자막에만 의존하였던 어린 시절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현재의 저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아직까지도 부족한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제가 쌓아온 영어 실력을 재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유에서 본 영화를 선정하였습니다. (D학생)

처음에는 어린이 영화를 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쉬운 단어나 문장들만 공부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 중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영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꼈는데 막상 찾아보고 따라해 보니 인상적인 표현들도 발견하고 저의 영어 실력을 한층 성장시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저의 수준보다 약간은 높은 영화를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H학생)

3. 동기유발

동기는 학습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문기(2016)는 대학에서 전공과 교양수업에 상관없이 좋은 강의가 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사항으로 동기유발 실패를 지적하였다. 학습 동기는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화두로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해서 Gardner와 Lambert(1972)가 구분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인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는 영화 선정 요건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전자를 소개하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영어를 습득하는 동기이고, 후자는 학습자 스스로

영어 문화권 안으로 통합되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영어 문화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싶은 흥미로 인해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이다. 이에 더하여 영어 문화를 알고 익숙해지려는 문화적 동기, 영어로 된 음악이나 영화 등 미디어를 이해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미디어 동기로도 구분하기도 한다(Clement, Dornyei, & Noels, 1994).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기는 통합적 동기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동기, 미디어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영화 선정 시 성적 향상을 고려하거나 목적으로 두지 않았으며, 미디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 인생의 배움을 통한 깨달음이 영어 학습 동기를 유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 흥미와 재미가 있는 영화

대부분의 영화 활용 영어 수업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재미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영화 선정 요건으로 나타났다. 영화 자체가 재미가 없다면 학습자들은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흥미와 재미는 주로 학습자의 선호하는 영화 장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영화 선정에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장르는 중요한 기준이며 재미와 흥미를 주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을 할 영화를 선정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영화를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좋을지 오래 고민을 해 보았는데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재미있게 보고 좋아하는 영화 중에 찾게 되었습니다. (H학생)

2) 교훈적이고 배움이 있는 영화

정은이(2010)는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수업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재미와 흥미 못지않게 학습자들은 배움이 있고 영화 속 인물의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습의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유의미한 학습은 인지와 정서의 통합적 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이어져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재미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특수한 행동을 동기 유발시킨다는 것이다(정준환 & 강인애, 2012). 연구 참여자들은 영화 선정 시 교훈이 있는가? 배움을 주는가? 그리고 의미 있는 내용인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몇몇 진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재미있게 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까 하다가 저의 마음을 울렸던 영화이자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던 영화 *인턴*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습할 장면은 줄스가 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장면이며 저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라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학생)

제가 자기주도 학습할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입니다. 패션에 관심도 많고 주인공이 앤 해서웨이를 워낙 좋아해서 보게 된 영화인데, 영화 내내 뉴욕 특유의 분위기와 패션 잡지 회사에서의 삶이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주인공이 발전해가는 모습이 덩달아 뿌듯해지는 기분이 느껴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성장시키고 자극주는 영화일 때 자기주도 영어학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G학생)

4. 자기주도 영어 학습을 위한 영화 선정: 교수자 vs. 학습자

영화를 교수자가 선정할 때와 비교해서 학습자가 선정할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장, 단점을 안고 있었다. 먼저 문제점으로 첫째,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영화를 선정하게 될 때 따라오는 문제점으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제라는 느낌이 들어 학습하는 데 자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둘째, 이해도와 성실성 그리고 과제 완성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본인이 택한 영화는 관심있는 장르로 좀 더 쉽게 그리고 정성껏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며, 학습자들마다 과제 완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학습자의 전체적 수준과 교육적 의미를 겸비하여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고, 균형있게 다양한 표현과 문장들을 학습하게 해주어 전체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교수님께서 영화를 선정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는 해당영화에 대한 기본 지식(내용, 인물, 정보 등)이 없어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니 자기주도학습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준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영화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조사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 과제라는 느낌으로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화를 선정하다 보니 시간대 분위기에 맞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나홀로 집에*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공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시간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A학생)

아무래도 교수님이 영화를 선정할 때는 우리는 고려한다 하시지만 선호하는 영화가 아닐 확률이 높고 영화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 성실하게 학습하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영화내용을 알고 있는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간 과제의 완성도라든가 수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G학생)

우리가 선택할 때와 질적으로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수님이 좀 더 전문가시다보니 영어 실력 향상에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하실 거 같습니다. 반면 학생이 선택할 때는 재미와 흥미 그리고 수준을 고려하지만 영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주먹구구식이 될 확률이 높은 거 같습니다. (D학생)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투자에 비해 낮은 효율성의 영어 학습 성과에 대해 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현실에 착안한다. 즉 영어 실력 편차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있는 제한된 교실 환경의 문제, 일방적으로 주어진 수준의 학습 내용과 과제, 방법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 분석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요인들에 대해 영화 매체의 활용과 영화 선정의 자기주도성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교수자가 교육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학습자들이 직접 선정한 영화를 활용해 자기주도 영어학습을 수행한 경험을 질적 연구방법으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특히나 학습자가 영화를 선정한 이유와 의미, 교수자가 영화를 선정해 주었을 때와의 차이점, 교수자의 영화 선정 향후 방향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가 영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가 영화 활용 수업에서 영화를 선정할 경우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학습자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의 효과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습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통해 7개의 주제, 3개의 주제모음, 2개의 범주로 선정 조직될 수 있다. 즉 학문적 범주와 정의적 범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실제적 자료, 영어 수준, 동기유발 등의 세 가지 주제모음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제적 자료 항목에는 ‘영어 발음과 억양을 고려한 영화’, ‘일상생활을 다룬 영화’, ‘의사소통이 활발한 영화’ 등의 주제가 포함되고, 영어 수준 항목에는 ‘나의 영어 수준에 맞는 영화’, ‘나의 영어 실력에 도전을 주는 영화’ 등의 주제가 포함되며, 동기유발 항목에는 ‘흥미와 재미가 있는 영화’, ‘교훈적이고 배움이 있는 영화’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물론 여기서 대학생들의 영화 선정 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경험은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휘 및 언어가 비교적 평이해야 한다는 김동규(2015)의 영화선정 기준과 맥락적 상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흥미성과 실재성 등에 있어서는 외국어로 한국어 교육에 적절한 영화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김서형(2009)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둘째, 학습자들의 선정 기준에 실제적 자료의 필요성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은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느끼는 바인데, 교재로만 배울 경우 원어민의 발화 속도와 상이함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과도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실제로 원어민들의 언어 환경과 유사한 경험이 절실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일상생활을 다루는 영화는 실제적 언어를 노출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교재 속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영화 속 현실이 실용영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일상을 다룬 내용은 학습자들에게도 유사한 삶의 경험, 유사한 의사소통 경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영어 사용의 장면에서 익숙하게 대처할 수도 있게 한다.

셋째, 학습자들도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영어 수준의 영화를 선정하는 데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자신의 영어 수준을 고려하여 적합한 영화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기준으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어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하는 데에 자기주도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Ellis와 Sinclair(1989)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해볼 수 있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학습자 입장에서 벅차다고는 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학습 자료의 제공이 자연스러운 발화상황과 연결시켜 주어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 유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영어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는 Gilmore(2007)의 연구 결과와도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영어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학습 상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영어 수준을 욕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학습동기를 자극하여 학습 지속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학습자들의 동기유발 측면에서는 주요하게 통합적 동기, 문화적 동기, 미디어 동기 등의 세 가지 동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여기서 성적 향상

위한 목적을 고려한 선택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고려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았을 수는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어 수준의 향상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영화 선정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언급은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나 학습자들은 영화 매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였다. 즉 영화 선정 요건 중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한 측면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영화 자체가 재미와 흥미가 없다면, 학습의욕의 저하와 함께 학습지속을 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을 커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선정에서 학습자는 주로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를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배움과 깨달음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흥미와 재미, 배움, 체험, 깨달음 등이 자기주도적인 영어 학습 동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을 위한 학습일지라도 단지 영어 듣기, 말하기 등의 기능학습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어느 학습 장면이나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배움과 깨달음을 기본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갈망이 결국 자신의 영어 학습 장면이나 상황에서도 작용하여 영화 선정 기준에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교수자가 선정할 때와 차이로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장점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수자의 선정이 영어 실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자기주도학습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과제라는 느낌보다 스스로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과제 시간의 효율성과 재미 측면에서도 학습자 선정이 필요함을 경험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영화를 선정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영화를 선정할 때 교수자와는 관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해보려는 시도에서 필요한 연구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교육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큰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영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이다. 또 영화 선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교육적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진한 아쉬움이다. 따라서 단순한 연구참여자의 전공이나 영어 수준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기간, 학년, 남녀, 지역, 경제 등의 여러 인구학적인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영화 선정 주체에 따라 학습 효과를 증명해 볼

영화 활용 자기주도 영어 학습에서 대학생들의 영화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35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하여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금선. (2013). 대학 영어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실학습 연구. *현대영어교육*, 14(2), 189-212.
- 김기택, 성민창. (2019). 초등영어 학습자 어휘 수준에 적합한 영어 애니메이션 영화 탐색. *영어학*, 19(4), 837-857.
- 김동규. (2015). 영화 활용 수업에서 듣기 전략 훈련이 EFL 학습자의 듣기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영상영어교육*, 16(1), 65-84.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6).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G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9(6), 1028-1220.
- 김서형. (2009). 영화를 활용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 교육용 영화 선정의 원리와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5, 161-187.
- 김은선, 이영순, 김동원. (2005). 중학생의 진로 인식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2(1), 203-221.
- 김하정, 원효현. (2018). 대학생의 영어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0(1), 295-304.
- 김혜진, 김옥분. (2009). 영재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교육*, 36(1), 23-44.
- 박은수. (2013). 대학생들의 영어사교육 실태 및 인식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87-108.
- 소연희. (2007). 선택권 제공이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는가?: 선택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의 쟁점과 교육적 함의. *교육방법연구*, 19(1), 77-96.
- 신경림. (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안애랑, 박은수. (2014). 수준별 영어수업이 중학교 하반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9), 47-64.
- 양현권. (2011). 대학 영어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4, 136-158.
- 유도형. (2015a).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영화미디어 활용 사례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8(1), 115-137.
- 유도형. (2015b). 영화선정에 관한 기준: 단어결합체를 중심으로. *영상영어교육*, 16(1), 133-151.
- 윤종욱. (2014). 독일 영화의 대학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연구: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17, 113-131.

- 이연화. (2010). 영화를 활용한 영어 학습 방법: *Forrest Gump*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7(2), 291-307.
- 이제영, 문은주, 박옥희. (2013). 영어수업에서의 영화 활용의 효과: 국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영상영어교육*, 14(3), 87-107.
- 장옥희. (2006). 학습자 자율성 신장을 위한 웹기반 자기접근식 영어 읽기학습: 고등학생 질적 사례연구.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9(1), 116-145.
- 정은이. (2010).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교육방법연구*, 22(3), 25-44.
- 정혜영. (2002). Krashen의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에 관한 개인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33(1), 131-147.
- 정준환, 강인애. (2012). 학습의 재미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통한 재미발생구조 도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479-505.
- 정재희. (2014). 영어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37, 107-142.
- 조혜영. (2015).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능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연구*, 5(4), 29-56.
- 최문기. (2016).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의 비교. *교양교육연구*, 10(3), 325-348.
- Akbari, O., & Razavi, A. (2016). Using authentic materials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s: Teacher's perspectives in EFL cla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Education*, 5(2), 105-116.
- Clement, R., Dornyei, Z., & Noels, K. A. (1994). Motivation, self-confidence, and group cohesion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Language Learning*, 44(3), 417-448.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rwing, T. (1989). Information type and its relation to nonnative speaker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39, 157-172.
- Ellis, G., & Sinclair, B. (1989). *Learning to learn English. A course in learner training*.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 House.
- Gilmore, A. (2007). Authentic materials and authenticity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Language Teaching*, 40(2), 97-118.
-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New York, NY: Association Press.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college

Keywords: movie English, movie selection criteria, self-directed learning, college English,
Collaizzi's phenomenological approach

김병선(제1저자)

조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바오로관 529

E-mail: bstesol@cku.ac.kr

장만식(교신저자)

조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사정센터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E-mail: c11123@cku.ac.kr

Received: January 14, 2021

Revised version: February 8, 2021

Accepted: February 22, 2021